



- 한해 감사 소감
- 할렐루야 나잇
- 청년부 / 교육부 소식
- 칼럼 / 간증

## ■ 2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 ‘나의 계획엔 없었던 그분’

저희 가족은 작년 봄에 미국에 와서 이웃 권사님의 권유로 주안에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올해 봄에는 부부가 함께 세례를 받았고, 이제 12월이 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 갑니다. 이 짧고도 귀한 시간동안 저희 가족은 정말 소중한 의미 있는 신앙생활과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올 때의 계획은 남편의 박사 후 과정 및 논문쓰기, 자녀의 영어 교육, 여행, 요리 등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과 계획은 0.1%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고, 말로 다할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장혜정 성도, 딸 지민, 남편 이규진 성도

그동안 한국에서의 저의 삶은 늘 바쁘지만 공허했습니다. 종교를 믿을 여유도 없고, 무엇에 의지하는 비이성적이고 나약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전적으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까,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고, 끊임없이 준비하고 대비해야 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바쁘고 분주한 만큼, 눈에 보이는 성과는 있었지만, 마음 한 구석은 텅 비어있음을 느꼈습니다.

미국에 와서 2년 동안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최혁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목장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캠프에 참여하며 조금씩 ‘나’ 중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해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40년 가까이 습관처럼 굳어진 성격과 말투 및 삶의 태도가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바뀌는 것이 스스로 느껴질 때, 그것이 온전히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님이 깨달아질 때, 어느날 하나님이나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고, 저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큰 은혜를 받았습

니다. 지금까지의 신앙 생활을 돌아해보면 엄마 뱃 속에서 태어나서 이제 갓 돌을 지난 아이와 같이 느껴집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 생활을 하신 분들에 비하면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걸음마를 배우는 단계입니다. 아기가 잠시도 엄마의 품과 젖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가면, 분주한 일상 속에서 많이 흔들리겠지만, 강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을 기도 할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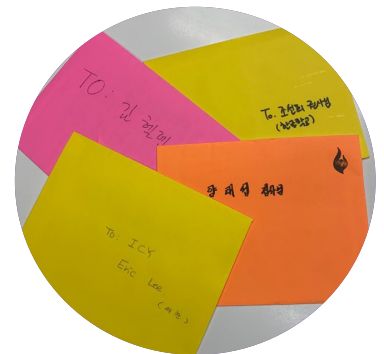
저희 가족이 주안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을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여기며,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 장혜정 성도 |



## ■ 감사절 릴레이 편지 쓰기

### 한 줄 손편지... 번져가는 행복

감사릴레이 편지가 계속됩니다. 올 한해 사랑을 베풀어준 주안에 교우들, 목장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카드에 담아 우체통(채플 별 분당 입구에 마련)에 넣어주시면 즉시 배달합니다. 편지를 받은 분들은 또다른 분들께 감사의 글을 릴레이로 보내주세요.



■ 삶을 돌아보며...

나의 믿음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40여 년 전 일이다. 우리 집을 방문 중이시던 장모님에게 3살 짜리 딸아이가 캔디를 가지고가 작게 쪼개달라고 하자 장모님은 이로 깨물어 캔디를 쪼개어 주려고 무심코 깨물었다. 그런데 아빨싸 캔디는 안 깨지고 송곳니 하나가 푹 부러지고 말았다. 장모님은 아쉬워하며 이를 부러진 곳에 다시 대어도 보고 손으로 만지작대며 낙심을 하셨는데 옆에서 이를 보던 우리 부부는 깔깔대고 웃으며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수 일전 집에서 저녁에 TV를 시청하며 피스타치오 은행을 손으로 까먹고 있었는데 하나가 잘 안 까져서 무심결에 송곳니로 이를 깨물었다. 그런데 딱 소리가 나며 송곳니가 부러지고 말았다 이 송곳니는 좀 흔들려서 세로로 구멍을 뚫고 심을 박아 놓은 약한 이였는데 하필 이 송곳니로 깨물어 부러지고 만 것이었다. 순간 너무 아쉽고 왜 하필 그 약한 이로 깨물었나 하고 아주 후회가 되었는데 이때 문득 40여 년 전 앞니 하나가 부러져 아쉬워하시던 장모님의 모습이 떠올라 이제야 그 심정을 생생히 느낄 수가 있었다.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이 처한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것은 우리 아들이 대학 1학년 여름 방학에 하게 단기 멕시코 선교를 다녀와서 선교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 썰물에 휩쓸려나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오늘 살려 주시면 평생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서원을 했는데 그때 파도가 밀려와 해안까지 밀어 주어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아버지 저 목회자가 되려고 해요" 라고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듣고 "네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며 깜짝 놀라 되물었다. 대학 진학을 하며 고등학교 때부터 의사가 되겠다고 해 부학 실험실에서 실습도 하며 준비를 해서 대학엔 간 외아들이 갑자기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 순간 기쁨보다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이었다. 평소 주의 종들이 겪으시는 아픔과 어려움을 옆에서

너무도 많이 봐왔고 목회자의 길이 하나님께로 양들을 인도하는 영광의 길이지만 인간적으로는 가시밭길이란 잠재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내 아들이 그 길로 가겠다고 하니 아쉬웠던 것이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들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을 묶어 장작불 위에 놓으려던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이 생각나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아들의 의견에 찬동하고 지금도 주의 종으로 잘 섬기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작은 아빨하나 잃고 아쉬워하다 나의 믿음을 다시 추스르고 다짐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 나형철 기자 |

■ 2019년 Thanksgiving Day 를 맞으며

공핍과 역경,  
나를 하나님께  
놀라운 감사의



**이명주 권사(벨리채플)** 을 한해 우리 가족에게 많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달 렌트비를 걱정할 만큼 어려웠던 형편에서 시작한 사업이, 이전 직원들의 가정까지 책임지는 사업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부족한 저에게 권사 직분을 맡겨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음향팀, 성가대, 찬양팀을 섬기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 예배를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같이 준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큰 딸의 길었던 4년 간호학 공부, 결실을 맺고 무사히 졸업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착하고 듬직한 예쁜 사위를 새식구로 맞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목표가 없던 작은 아들이 꿈이 생기고, 밖에 나가 놀기보단 하나님을 제일 우선 순위로 매주 금토일마다 교회에서 섬기는 아들이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의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족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 가정이 마주치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불평과 낙망보다는 먼저 주를 찾는 가정이, 부족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를 제일 잘 아시며, 가장 선한 계획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유영애 권사(벨리채플)**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한해를 돌아보니 감사 또 감사밖에 없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높으신 전능자 하나님께 주안예교회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그리고 중창단에서 귀한 찬양자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하고 행복한 한해였습니다!



**김연실 집사(벨리채플)** 을 한해는 제 삶에 아주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는 날이 매일 감사한 일이지만 그 중에 가장 감사한 일은 6년의 기도 끝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 주안예교회를 섬기게 하신 일입니다. 이곳에서 최혁 담임목사님과 여러분의 사역자들과 또 14목장 식구들을 만나게 하신 것, 또 주신 달란트로 성가대를 섬기게 하신 것 등,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로 넘칩니다.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 감사절을 앞두고...

# 영적 고통이 더 가까이... 제목이 되었습니다



**류명수 집사(벨리체플)** 을 한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은혜의 한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올초 영적으로 다운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한편으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멕시코 선교와 교회 봉사로 더욱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날들로 행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 최혁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박경숙 권사(MP채플)** 2019년 한 해의 시작이 옛그제 같았는데 벌써 추수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다니 살짝 경사가 생긴 세월의 비탈길에 서서 지난 한 해, 감사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던 나는 1년 넘게 주안에 신문기자로 섬기면서 한 달의 한 번은 꼭 문서국 기자들과 모임을 가지므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아울러 매 달 주안에교회에 관한 기사를 한 번 이상씩 쓰면서 교회의 전반적인 행사 및 교우동정 등등 교회소식에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글을 잘 쓰기보다는 글쓰기를 좋아하는 부족한 나를 주안에 신문기자로 사용해 주시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이제 두 달 남은 2019년도 주안에신문을 잘 마무리 하므로 보다 성장하는 문서국과 주안에교회를 꿈꾸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린다.



**Chris Mcgee 안수집사(MP채플)** Throughout the year, I often give thanks to God during prayer for many of the seemingly everyday small things He does such as: a new day, air to breathe, food on the table. This time of year, I try to reflect on the major things God has done in my life. Things like: meeting my wife, having wonderful kids, and staying healthy. I also feel thankful for the times of hardship, financial strain, or other major struggles I have had. It's those hard times that have really shaped my life and steered me closer to God. It's those things that I feel most grateful for.

## 최고의 복을 받은 새신부



2019년 카운트다운을 TV에서 본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2019년 막바지에 와 있다는 것이 믿기기 힘들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정신없이 스쳐간 시간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11월 9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새신부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 드리는 감사의 고백은 굉장히 특별하고, 새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적도 너무나 많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결혼을 통하여서 저를 격려하셨습니다. 저에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라고, 좋은 믿음의 집안과, 또 항상 전심으로 제 사역을 도와주는 신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청년때 부터 하나님께 버릇처럼 한 기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을 해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청년때 보다 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더 많이 섬기게 해달라는 기도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심어린 기도를 정말 들어주셨습니다. 저의 신앙의 색깔을 잘 이해해주고, 제 사역을 마치 자신의 사역처럼 여겨주는 사람을 제 옆에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함께 지켜볼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우리 집안에 리브가가 들어왔다고 하시면서 저를 정말 딸처럼 사랑해 주시는 시어머니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새신부가 받을 수 있는 복들 중에서 정말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는 특별히 우리 ICY 학생들과 또 같이 섬겨주는 EM 리더 학생들, 그리고 PSG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이 많은 짐들을 같이 지어주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 그 자체였습니다. 이 분들을 통하여, '아, 영혼사역의 아름다움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ICY 전도사가 되지 않았다면, 이 학생들을 모르는 삶을 살았을 텐데, 우리 ICY를 통하여 오히려 제 삶이 더 풍성해 졌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그리고 항상 내 마음을 읽으시고 회복의 기회를 공급하시는 주님을 위해, 앞으로도 남은 사역을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 김민재 전도사 |





■ 할렐루야 나잇



## 할로윈 No, 할렐루야 Yes!

매년 10월 31일이면 세상 사람들은 괴상한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Trick or treat! (맛있는 것을 주지 않으면, 장난칠거야!)를 외치며 거리를 활보하지만 주안예교회의 어린이들은 이쁘고 맛있는 모습으로 모여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지난 31일에도 각각 두 채플에서 IC KIDZ 어린이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학부모님들이 준비한 맛있는 음식

을 먹으며 행사는 시작되었다. 식사 후에는 각 부스마다 여러 종류의 게임들이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바로 게임들을 즐기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여기저기에서 불꽃놀이처럼 광광 터져나왔다. 게임에서 받은 선물과 캔디들을 오렌지 백에 가득 채우면서도 비어 있는 친구의 백에 자신의 캔디를 나누며 함께 웃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웠다.

ICY KIDZ를 지나 ICY 가 된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은 자신의 옛 모습을 보듯 더욱 열심으로 도왔고 아울러 앞으로 미래엄마, 아빠가 될 코람데오 청년부의 봉사 또한 밝은 미래의 IC KIDZ를 보는 것같이 너무 귀했다. '할렐루야 나잇'은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와 일치하지 않아 교회가 만든 아주 필요한 행사로써 매년마다 거듭될수록 더 많은 관심과 기도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호받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

| 민유선 기자, 사진: 최호기, Paul Yang |





■ ICY 골든벨 퀴즈대회



#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 골든벨

2019년 10월 27일(주일), 각 채플에서 제 2회 ICY 골든벨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ICY를 조인하게 된 중학생들도 처음으로 이 대회에 참여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어렵다고 걱정을 하던 학생들이 나중에는 그림을 그려가며 성경구절을 외우는 등, 다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이 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많은 학부모님들도 학생들이 이 대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번 골든벨 대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사랑’ 시리즈를 다시 한번 더 마음에 되새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고, 학생들이 말씀에 한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원하며, 내년에 있을 제 3회 골든벨 대회를 기대해 봅니다.



밸리- 1등: Samuel Cho, 2등: Isaac Choi, 3등: Minho Park/ MP- 1등: Yephy Park, 2등: Hanbi Cho, 3등: Steve Min

| 김민재 전도사 |



■ 한국의 날 행사

## 전통 먹거리 · 민속놀이... 체험 통한 뿌리 교육

10월 6일(주일) 밸리채플은 11시, MP채플은 1시에 ICY, KIDZ, JOY 연합으로 예배를 드린 후, '한국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각 PSG에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김밥, 떡볶이, 잡채, 떡등 맛있는 우리의 전통음식을 먹으며, 서예, 투호, 제기차기, 딱지치기, 굴렁쇠등 민속놀이를 해보며 의미있고 신명나는 하루를 보냈다.

MP채플에서는 가야금 연주하는 학생이 '아리랑' 과 '도라지'를 연주하여 가야금을 처음보는 아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구슬픈 우리의 가락에 어른들은 가슴이 뭉클거렸다. 끝나갈 무렵 선생님들께서 IC



KIDS&JOY 아이들에게는 북두머니에 나무공이를 담아 선물로 주셔서 아이들에게는 더욱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주안예교회 모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한



국의 뿌리와 얼을 기억하고, 한국인 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문화를 잊지 않고 지겨나가는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성장해 나가길 소망해 본다. | 이성은 기자 |

■ 사역자 글

*'one thing I am very thankful for'*

As I reflect on 2019, I honestly do not know how it went by so quickly. There are so many aspects in my life that I am thankful for, but if I really have to narrow them down to a couple, I would say being a pastor for our ICY students is one thing I am very thankful for.



The position as a pastor requires me to be focused with my worship, always reflecting and evaluating my heart and motives, having that mentality to be rooted and dependent on God no matter what for His children and for His Kingdom and also for my sake.

Through His children, God teaches me to be humble, God rebukes me for my selfishness and shortcomings, but I am able to experience God's unfailing love, encouragement, and glory through His children and through my personal time and relationship with God. Even though I face discouragements and hardships, I am able to see hope and God's faithfulness through His children and through worship that we have together.

The biggest blessing I received since Summer 2018, is our ICY Students and being able to share God's love and grace with one another. Another aspect that I am thankful for is our ICY PSG and PSG leadership. I am very encouraged by them every time I interact with them, and they spend their time and energy to do everything that P. Liz and I ask them to do to support our children. They offer their service and heart to attend and serve God's children and I am honestly very honored to partner with them to raise God's next generation and His warriors. When I ask for something, they are able to get the job done and they make my tasks easier to do so. They are faithful to their responsibilities and I am extremely thankful for our parents' willingness to serve and love God's children.

Lastly, I want to share this gratitude with my friends. I honestly don't think I can still be here as a pastor without my friends. Their emotional, psychological, and spiritual support really kept me going and encouraged me a lot for the past year and 4 months. Whenever I needed emotional and spiritual support, I knew I could count on them for prayer and love towards a broken sister (which is me). The reason I was able to endure and persevere as a pastor was because of the sisterhood that God gave me as a present many years ago. Whenever I talk to my best friend, I am reminded of God's faithfulness and His supporting hand and grace towards me and His people.

2019 was a year of a lot of letting go and a lot of training and discipline from God, but I can confidently say, it is a year of blessing and God's faithfulness to me. Every year, I am excited about what God is going to show me and He definitely led me well this year and made me excited for His hands and works in my life for the upcoming years. Soli Deo Gloria!

| 오제니퍼 전도사 |

■ 테크놀로지 세미나

가정내 엄격한 규칙 적용

10월 5일(토) 오후 2시, MP채플 ICY룸에서 스웬서김 목사를 초빙해 'Technology and Family'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주최했다. 스웬서목사가 애초에 부탁한 대로 아버지들 참여가 많았고, 이제막 아빠, 엄마가 되는 새내기 부모들의 참여도 꽤 되었다.

당신도 게이머(Gamer)라고 자기를 솔직하게 소개하며, 유쾌하게 강의를 이끌어 나갔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게임이나 핸드폰을 빼거나 금지 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며, 뇌의 후두엽에서 나오는 '도파민(Dopamine)' 호르몬이 게임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나 핸드폰에 장시간 노출된 아이들의 뇌를 장악하고 중독시키는데 이것은 마치 마약, 술, 담배, 도박 등과 같은 무서운 중독상태이며, 도파민 호르몬이 후두엽을 지배할 때 아이는 급기야 Monster처럼 될 수도 있으며, 도파민호르몬이 그런 악영향을 준다고했다.

개선책으로 부모들은 청소년들이 게임기나 핸드폰 등 Technology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엄격한 규칙을 만들고, 아이들은 물론 부모도 예외없이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어겼을 때에는 정당하게 벌칙을 정하여 지키도록 하되, 부모 또한 그렇다는 것을 알도록 한다.



아이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강요하고, 강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며, 규칙을 이해하고 가족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설득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가장 위험한 환경 중 하나는 아이들이 방문을 닫거나 잠그고 고립되어 있을 때라고 하며, 이렇게 부모로부터 방치 되는 시간에 아이들은 포르노, 사이버폭력, 혹은 다른 수많은 포식자와 악한 것들로 부터 우리 아이들은 보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방은 침단기기를(게임기나 스마트폰 등)이 없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자주 소통하며, 미래에 대한 목표와 계획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좌절되고 힘들 땐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수 있도록 도와주는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라고 했다. 또 그 역할은 아빠나 엄마가 동시에 하는것 보다 일관성 있게 한쪽(아빠 or 엄마) 이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끝으로 우리는 크리스천 이므로 가정예배와 가족모임을 통해 크리스천으로서의 가치(Value) 를 소중히 여기고, 또 가족구성원 으로서의 가치도 중요하게 여길수 있도록 본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우리 아이들이 좀더 쉽게, 빠르게 침단기기를 이용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을 남용하고, 의존하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쏟아야 하고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이성은 기자 |



■ 주안에일꾼/ 석광수 집사(MP)

■ 목장 소개(MP채플 2목장)

### 변함 없는 미소 파킹장이 환해요

더운 여름이  
나 추운 겨울  
이나 주일 아  
침 일찍부터  
섬김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친절한 미소로  
먼저 성도님들  
을 반갑게 맞  
이하는 석광수 집사가 주차장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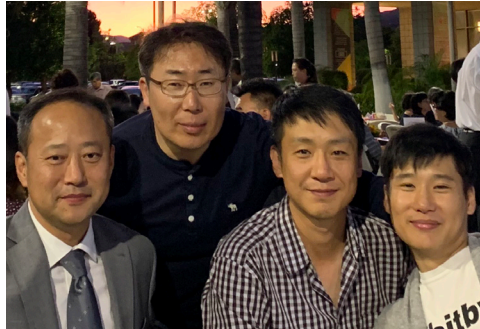
석광수 집사가 주안에교회에 출석한지는 2017년으로 처음에는 등록도 안 하고 LA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MP채플이 세워지면서 등록교인으로 출석하여 기도국, 봉사국에서 섬겼고 지금은 주차국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다.

햇볕이 짙게 내리쬐는 지난 여름에도 밀집모자 그늘에 몸을 맡기고 교회입구에 들어서는 성도들에게 반가운 미소를 띄우며 차 한대 한대가 안전하게 주차하도록 돕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이제 다가올 겨울에도 바람과 추위를 뒤로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교회 초입에서 성도들을 섬기실 석광수 집사의 따뜻한 마음이 다가올 겨울을 훈훈하게 맞이할 수 있으니 다시금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기를 축복한다.

| 박경숙 기자 |

### 젊은 열정으로 솔선수범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이 한창인 이 가을에 봄같이 상큼함을 물씬 풍기는 MP채플의 2목장을 소개한다.

2목장의 목자로는 최찰스 집사와 애슐리 권사로 젊은 열정을 다해 교회와 목장을 솔선수범으로 섬기고 있다.

2목장의 식구들은 전반적으로 젊은 부부로서 작년에는 목장전체가 잠시 빨리채플에 출석을 했다가 올 해에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MP채플로 전원이 출석하고 있다.

채플이동을 하는데 목자의 권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두가 동시에 감동을 받아 한 마음으로 MP채플로 움직여 준 것에 목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주안에교회의 밝은 미래인 2목장은 돈독하게 서로를 챙기며 또 교회를 사랑하여 젊음을 다해 목장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의 자리를 지켜가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안에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다. | 박경숙 기자 |

### 기독교인들이 삼가해야할 표현 '고인의 명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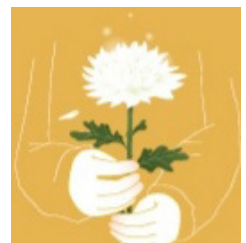
불교와 유교문화의 사상 안에서만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당연히 그 자손들도 그 사상으로 교육하여 우리 또한 우리도 모르게 그 문화속에서 살아왔다.

100여년전 외국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상과 문화가 조선땅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간혹 기독교인으로써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을 모르고 사용하는 것같이 지면을 통해 알린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 고인과 가족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위로의 말을 건넨다.

그러나 이 말에서 기독교인이라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명복"으로써 그 뜻인즉 명복(冥福) = 돌아가신 뒤에 저승에서 받는 복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라는 것으로 쉽게 풀이하자면 "예를 다하여 돌아가신 분이 저승에서 복을 받기를 바란다" 라는 뜻이다.



명복(冥福)이란 말은 불교용어로서 '명부(冥府) 즉, 저승에는 사후세계를 다스리는 염라대왕이 살고 있는데 죽은 사람들은 모두 염라대왕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명복을 빈다' 는 고인이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으로부터 심판을 잘 받고 복을 누리기를 비는 것을 말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은 우리나라가 옛부터 써오던 말로서 불교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으니 앞으로 기독교인들은 다른 표현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기를 바란다.

| 박경숙 기자 |



동네주민들도 함께 할렐루야 나잇

■ 코람데오 소식



■ 청년부 헌신예배

지난 10월 27일 오전 11시, MP 채플에서 <Come Back Home>이란 주제로 청년들을 초대하여 청년부 예배를 드렸다. 몇달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의 모든 순서를 코람데오 청년들이 다 같이 함께 힘써 준비하였다. 이전에 나왔지만 한동안 나오지 못했던 청년들이 다시 나와서 함께 찬양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누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청년들의 한 마음, 한 마음을 모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허락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사랑콘서트

10월 13일 주일, 2부예배 후 MP 채플 청년부실에서 영커플과 코람데오가 주최하는 콘서트가 열렸다. 이번 콘서트를 위해 만든 F4라는 그룹 (박찬경 집사, 이성우 전도사, 이요셉 전도사, 황중훈 집사)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콘서트를 진행하였다. 박찬경 집사의 아름다운 색소폰 연주로 시작하여, 이요셉 전도사의 솔로 및 기타연주, 이성우 전도사와 황중훈 집사의 듀엣,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무가 함께한 트로트 찬양까지, 콘서트에 참석한 모두가 감동과 웃음으로 그 곳을 가득 채웠다.  
| 양하민 기자 |

2019년 나의 감사노트



**배이레 성도** 제가 살아온 인생이 짧은 편이지만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던게 제가 믿는 신이 진정한 하나님인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서서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물론 사춘기를 겪으며 하나님을 외면한 시기도있었지만 그 시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음이 성장한 터닝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몸과 정신이 성장하듯이 믿음도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의 존재에 더 확신할 수 있었으며 이 세상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따르고 순종하는 신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마 살면서 제일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혜리 성도** 우선 올해 무탈하게 잘 지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 이런 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 청년부 리더들과 청년들이 더 열심히 섬겨주고 마음을 함께해 준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려울 때 청년부를 위해 힘이 되어주신 한동수 집사님과 이레베카 집사님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윤기 성도** 부족한 저를 주안예교회로 인도하시고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팀을 섬기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청년부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서 청년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안예교회와 코람데오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 ■ 교육부 소식

## ■ EM Fellowship Banquet

The EM young Adults and college students had a banquet on Oct 13 th . It was a great time for fellowship where new members were acquainted with the history of ICCC. As they enjoyed the Mediterranean food, their laughter filled the air. As Pastor Elizabeth ended the event with a prayer, everyone left feeling good. If you missed it, be sure to join the upcoming EM events in November.

| Simon Cho 기자 |



## ■ ICY Praise N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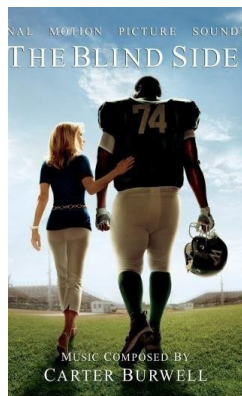
10월 25일 금요일 저녁 ICY Valley채플과 Montrey Park채플의 중-고등학생들이 MP 채플에 모여 찬양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소리높여 찬양과 기도를 올려 드리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특별히 두 채플 학생들이 하나되어서 드리는 예배와 교제의 시간이라 더욱 감사하다. 밸리채플에서는 학부모님이 차량 봉사도 도움을 주셨고, MP 채플 학부모님이 Taco Truck 을 불러 주셔서 7:30분부터 예배가 끝난 10시까지 학생들이 바로 바로 만들어주는 맛있는 타코를 먹으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류명수 기자 |


 ■ Movie Review/  
'The Blind Side'

*'to rekindle the Christain value of kindness.'*

Thanksgiving is a special time where we can gather to enjoy meaningful moments with family and friends. This season, my family will be re-watching the movie "The Blind Side" to rekindle the Christain value of kindness.

It has always been easy for us to be kind to those we love or to strangers who we may not meet again. But this movie goes beyond that. It reminds me of who our neighbor should be and how we should treat them. Like the good samaritan in the bible, the white, affluent family "take in" a black teenager who has a violent and troubled background. The new



family starts to help him develop his raw talent in football and change his future for the better.

There are many typical emotional moments, but I challenge you to ask yourself this question, "Would you do the same thing in those situations?" If so, what are you doing now that can reflect that kindness? For this season, can we all extend that loving attitude, that God commanded us, to someone else? Happy Thanksgiving everyone!

| Simon Cho 기자 |

■ 장수시대 은퇴플랜 3

'지금 시작하라'

베이비 부머 시대가 다가오면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은퇴 자금과 롱텀 케어 준비를 하지못해서 걱정하는 모습을 상담하면서 많이 접하게 된다. 30-50대중반까지 바쁘게 아이들 뒷바라지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잠깐 편한가 싶으면 은퇴라는 큰 산이 눈앞에 닥쳐서 필요하다 싶을 때는 능력이 없거나 시간이 촉박해서 충분한 자금을 모으지 못하는 재정적 악순환을 겪게 되곤 한다.

인생의 황금기인 40대를 살면서도 은퇴를 대비해 어떠한 저축도 하지 못했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 그렇다고 자책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돈을 모아둘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은퇴플랜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은퇴를 겨냥한 목표의 금액은 틀리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수입의 15%는 저축하라는 조언이 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펜션플랜이나 401(k) 등의 직장 은퇴저축 플랜이 있다. IRA는 일반사람들이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의 세금유예혜택을 받아가며 수입의 일부를 은퇴연금으로 저축한다.

재정상품으로 생명보험(Living benefit 장기질환, 말기질환, 중병혜택/연금수입기능 income guaranteed 소득세부과 대상이 아님/롱텀케어 long term care 메디케어에서 제공이 안되는 간병인 혹은 간병시설 비용을 위한 혜택 등)을 준비한다. 재정상품을 고를 때는 꼭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개인상황에 따라 은퇴준비와 저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재정전문가의 한 테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

어떤 상황이나 이유가 됐든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은퇴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금 시작하라는 것이다. 하루라도 먼저 시작할수록 그만큼 은퇴준비를 향한 나의 걸음은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민유선 기자(재정전문가) |

■ 주안예교회에서 1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따라



예전 섬기던 교회는 개척멤버로 시작하여 사정상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며 마지막 예배까지 함께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워낙 작은 교회이다 보니 목회자와 성도간에 관계가 친밀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의 교회였습니다. 반면 미자립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도 많았던 교회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정든 성도들을 떠나보내는 입장에서의 아픔과 안타까움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좌절되고 의욕을 잃었을 때마다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 곳을 알려주시고 확신 시켜주시는 아버지에 은혜때문에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아프게도 7년을 섬겼던 교회는 문을 닫기로 결정이되며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은...어떤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고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마치 집이 없는 고아가 된 마음이라 할까요.. 언제 어느때나 기도하러 갈 수 있었던.. 매 주일 예배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나의 집이 없다 생각하니 어찌나 눈물만 나던지요. 그러면서 불쑥 나에게 들어온 연약한 마음이.. 어차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인도하셨을것을 왜 나를 이곳이 내 자리라 하시고 섬기게 하셨는지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순 없지만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위에서는 믿음에 사람들 조차도 너네 교회 망했다며? 그러니깐 진작에 나오지.. 하며 위로 아닌 위로를 저에게 참 많이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섬길교회가 없을 때의 외로움과 아픔을 경험케 하시며 교회에 대해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한 단계 더 성숙된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다음 섬길 교회를 주안예교회로..이미 최혁목사님 설교는 몇 해를 유튜브를 통해 듣고 있었고 섬기던 교회에 주중예배가 없던지라 주안예교회 주중 예배를 2년정도 드리고 있었던 때여서 다음 섬길 교회는 주안예교회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내 생각과 마음으로 정하기 보다 그래도 기도하고 아버지가 정해주신 교회가 어디인지 응답받고 가는 것이 옳다 라는 생각이 들어 그날도 빨리 주중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너무나도 재밌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주중예배 말씀중에 응답을.. 또 1년전 힐링캠프를 참여했을 때가 제가 섬겼던 교회가 문을 닫기 1년정도 전이었는데 그때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셨던 동일한 메시지가 제가 다음으로 섬길 교회의 인도하심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며 주안예교회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애솔리 집사 |



사랑콘서트에서 연주하는 이요셉 전도사(왼쪽부터) 황중훈 집사, 이성우 전도사, 박찬경 집사



■ 한국에서 온 편지

## 다시 내 인생의 시작점에서

침문 너머 고운 색으로 물들어 가는 가을산이 눈에 들어 오고, 식탁에는 지난 계절들을 지나며 수고한 손길 위에 맺어주신 추수의 과실들로 풍성한 시간들입니다. 한국에 돌아올 때가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그 계절이 지나고 가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만남들이 이루어져 갈수록, 다시 시작된 관계들 안에서 이곳에 세워주신 섭리를 더욱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을 임해주신 정체성으로 다시 시작된 한국생활. 그것은 새 생명을 입고 이 땅에서 제 인생이 시작되었던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와 서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 접한 내 나라의 모습.. 이젠 그 가운데 많은 노력들이 이뤄지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가는 여정이지만 노인들을 위한 복지, 곳곳에 조성된 녹지들 산책로들... 그리고 비록 의견들이 달라 반목하고 대립하며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지만 그 안에는 나라를 향한 국민들의 진심이 녹아있다고 바라보게 됩니다. 참 애쓰고 수고하며 여기까지 와준 내 나라가 고마웠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한 시간이며 그 멀수록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정착한 교회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며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만남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지만 목장예배에도 제법 익숙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말씀에 비추어진 각자의 삶에 대한 진솔한 나눔과 중보를 통한 격려 속에서 함께 서로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가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폐암을 앓고 항암 중에 계시는 아빠와의 동행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얼마전 레위기 말씀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거룩이 부모님을 경외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이는 그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겨야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눈에 비쳐지는 부모님의 모습의 어퍼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부모님의 영적권위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이처럼 아빠의 가장 연약한 시간에 곁에서 나란히 걷게 허락하시고 기회주심에 감사한 시간입니다. 저의 소식과 아울러 영적 가족들 주안에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그리움을 전합니다.

| 김명자 편사 |

## 주안에교회 훈련이 큰 힘

너무나 보고싶고 그리운 주안에교회와 교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모두가 평안하시지요? 저희 가족이 미국땅을 떠난지 벌써 8개월이 되었네요.

저희 부부는 입국하자마자 이사하고 새 학교와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보냈지만 나그네와 같은 저희 가족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 하루하루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름 미국 주안에 교회에서 훈련받아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자부했었는데 각종 사건과 문제 속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브릿지 캠프를 통해 회복을 명하셨고 선포되는 최혁 목사님의 매세지를 통해 영과 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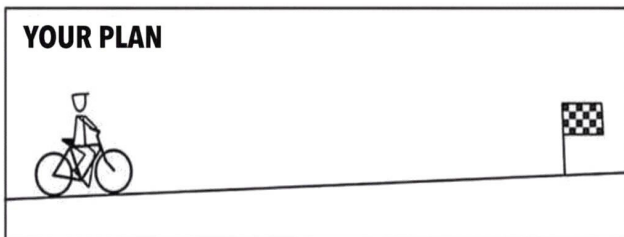


사실적으로 체험케 하셨습니다. 지금도 각박하고 치열한 삶속에서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미국에서 저희 가정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돌보심을 추억하며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길 기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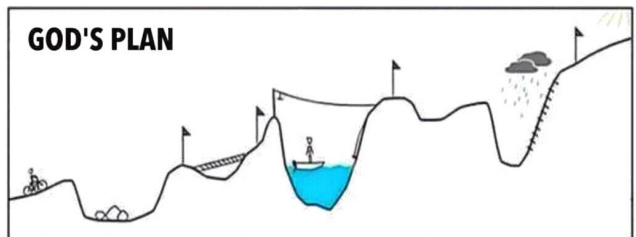
곧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네요. 지금은 비록 한국에 머물고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주안에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 잊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만간 하나님의 시간에 한분 한분 뵙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살람!!

| 박상근 안수집사, 신인숙 집사 |

### YOUR PLAN



### GOD'S PLAN



## 나의 계획 vs. 하나님 계획

내 형제들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2-4)

## '스트레칭, 내 몸에 보약'

우리들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노력의 댓가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운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5가지로 요약해 설명하므로 다시 한번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첫째: 근육 긴장감 해소- 운동 전이나 운동 후 근육의 긴장을 풀어 주므로 근육이 뭉치거나 아픈 것을 막아주는 장점이 있다.

둘째: 균형 감각 향상- 뭉친 근육을 완화함으로써 몸의 균형을 찾도록 해 주며

특히 부상을 방지하므로 사전에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셋째: 둔근 활성화- 오래 앉아 있으므로 근육 쇠퇴를 방지하며 스트레칭은 근육을 깨워 주는 역할을 한다.

넷째: 혈액순환 개선- 건강한 몸에 필수적인 혈액 순환을 증가시켜 주어 뇌산소를 보내 맑은 정신을 갖게 해준다.

다섯째: 흉추 건강개선- 허리 중앙에 위치한 흉추는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과 자세 교정에 매우 필요하며, 전신을 바로 세워 주는 기둥 역할을 한다.

매일 몇 번씩 척추를 뒤틀면서 움직여 주어야 한다. 이외에도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은 육신의 보약이라 할 수 있으므로 나이에 관계없이 스트레칭의 방법을 잘 배워 생활 속에서 건강한 신체와 함께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를 바란다.

| 주안에라이프 스트레칭 강사 임용자 |



## ■ 포토 에세이



## '설렘'

LA 공항을 내리는 한 비행기다. 가물가물하지만 미국에 이민 올 때가 생각이 난다. 두려움과 걱정이 먼저 앞섰었다. 소년은 마음이 부풀어 있었고 흥분이 되어있는 설렘으로 가득했다. 새로운 곳을 본다는 것이 너무 좋았고 행복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 소년은 어른이 되고, 이제는 집에 가는 10번 프리웨이가 막힐까봐 걱정하고 따뜻한 된장국과 밥 한그릇을 더 생각한다.

또 다른 설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 나 보고싶은 것들이 많을지 기대되고 흥분된다.

제일 먼저 하나님하고 예수님한테 인사 먼저 드린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 구경을 시작할거다. 옆에 그 누가 같이 간다면 좋고 아님 나 혼자 여행을 가도 좋을 것 같다. 맛있는 사진들도 많이 찍을 예정이다.

| 최호기 기자 |



##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00  
MP채플/ 1부 오전 10:00, 2부 오후 1:00

주중 예배

수요일예배/ 저녁 7:45 MP채플  
금요일예배/ 저녁 7:30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MP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수 저녁 7:45  
MP채플/ 주일 오전 11:30, 금 저녁 7:45

### ICY중고등부&영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후 1:30, MP채플/ 주일 오전 10:00

###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후 1:00

###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 MP채플 임시예배처소 MP Chapel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 "주안에" 2019년 12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민우선, 박경숙, 양하민, 이성은, 이예스터, 임용자, 임종구, 조 사이먼, 조용대(기자)

양영, 최호기(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

2019년부터는 주안에신문이 매달 초에 미리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